

Aai izz well



Aai izz well은
'All is well'의 인도식 발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인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RatonAtti 10th
Mumbai, India

Contents

1. 10월 일정

2. 10월 활동 보고

- HINDI Class

- Play School

- Kamathipura Day Care Center

- Night Study Center

- END POVERTY Campaign

3. 우리들의 이야기

4. 10월의 특별한 이야기

5. Monthly Photo

1. 10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HINDI Class Play School DCC	2 Gandhi Jayanti	3 HINDI Class Play School DCC	4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5 HINDI Class DCC
6	7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8 HINDI Class Play School DCC	9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10 HINDI Class Play School DCC	11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12 HINDI Class DCC Volunteer Meeting @IH Navratri
13 Dassara	14 Play School DCC NSC	15 Play School DCC	16 DCC Bakri-Idd	17 Play School DCC Community Meeting @ORD	18 Play School DCC NSC	19 DCC
20	21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22 HINDI Class Play School DCC	23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Korea Culture Day)	24 Road campaign 사전답사 @CST Play School DCC	25 HINDI Class Play School DCC	26 Road Campaign @CST
27	28 DCC	29 MOVE TO BOY'S HOME	30	31 YMCA Juhu Beach Shelter bus trip (~11/3)		

* Blue: End Poverty

* Orange: India Holiday

2. 10월 활동 보고

(1) HINDI Class

지난달에 이어 힌디어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재미있기도 했었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수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힌디어를 통해 처음 만나는 인도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단어 하나라도 더 들리는 신기함을 느끼고 있다. 두 달 여간 배운 힌디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현지인들과 소통함에 있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Play School

Play School은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같은 곳이다. 오전반과 오후 반으로 나뉘지는데 우리는 오후반 아이들과 만났다.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찾으려서 우는 아이부터 준비해 온 간식을 우리에게 자랑하며 먹는 아이까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이곳 아이들은 간단한 영어 동요와 파닉스를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국내 지역훈련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아이들 수준에 적합한 영어 챗트를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들에게 영어 챗트 알려주기와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활동을 제안했다.

매주 한 개의 새로운 챗트를 알려주는 동시에 이전 챗트를 복습하는 활동을 하였다. 챗트는 멜로디, 단어 수준을 고려하여 주로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들어간 노래와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챗트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따라 하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영어 동화책도 읽어주었는데, 예상했던 것 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서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5일에는 재활용의 의미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날에는 신문지를 활용하여 모자, 칼, 옷 등을 접기도 하고 빈 페트병과 신문지로 만든 공으로 볼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신문지로 딱지를 만들어 딱지 치기, 딱지 날리기 등과 같은 한국 전통 놀이를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아이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어 챗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특히 영어 챗트에는 동물 흉내를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넣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즐거워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때때로 아이들은 이날 배운 영어 챗트를 부르며 동물 흉내를 내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그 시간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아 뿌듯했다.



DCC 인물 탐구!



샤달람

‘샤달람’ 없는 DCC는 고요할 정도로 언제나 썩 썩하고 활기참. DCC의 에너지이저답게 잠자는 시간을 싫어해서 “쏘야 해(우리 말로 ‘자자’)”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함. 자주 입고 오는 민소매 티가 야성미를 부각시킴.



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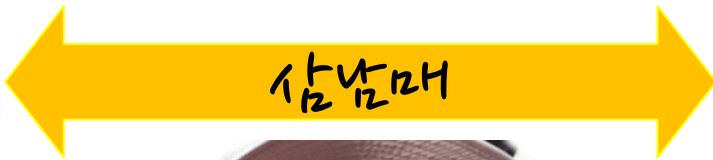
우에슈

(특히 샤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가끔씩 욱심쟁이가 되지만 멋쟁이. Neeta의 보물 1호. 단원들을 베키게 삼아 기대는 것을 엄청 좋아함. 낮잠시간에 가장 먼저 잠드는 아이.



구날

오전과 오후 컨디션이 전혀 다름. 뛰어가는 뒷모습이 인상적임. 야채를 골라내고 인상 쓰며 먹지로 밥 먹는 경향이 있음. 새침할 때는 함께 점프를 하거나 바람을 솔솔 불어주면 좋아함.



삼남매



슈방기

DCC의 홍일점이자 말연니. 항상 빙글빙글 도는 놀이를 하자고 하는 어지러움을 지배하는 자. 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놀이를 알려주기도 했음.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단어를 읽거나 말할 때 만큼은 청산유수! 말연니답게 가끔은 아이들의 싸움을 중재해 주기도 함.



까르픽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밥도 가장 야무지게 잘 먹는 애교쟁이 막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돌고래 소리를 냄. 단원들에게 가장 많이 업히거나 안긴 아이. 여자 단원들이 이를 장착했다고 표현함.

DCC 인물 탐구!



리자울

DCC의 맏형이자 눈물이 많음. DCC의 Helper 선생님인 바비와는 모자 관계. Helper 선생님의 휴무일에는 당연히 결석. 앙상한 몸과는 달리 무게가 꽤 나감. 때때로 안기고 싶어하지만 역부족. (미안)

알타마쉬

지금은 집안사정으로 DCC에서 얼굴을 볼 수 없음. 해맑은 웃음이 그리움. 비누방울, 신문지 활동 때 적극적이었음. 우수한 인재로 똑똑함.



디와르

활동 중론 몇 일 전에 새로 만난 친구. (람비르 아버님의 소개로 이곳을 방문) 처음엔 우리를 경계했지만 달고나를 먹으면서 조금은 친해진 아이



람비르

처음에는 무표정에 혼자 놀고 조용해서 친해지기 어려울 줄 알았지만 Play school에서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서 알고 보면 정도 무진장 많고 애교도 있음. 잘생긴 아버님이 거의 매일 등하원 시킴

디바크

DCC의 또다른 막내. 단원들을 때리고 도망치는 것을 잘함. PRIYA에 가장 호감을 보임. 살인미소를 짓고 있지만 어느새 가슴 위에 손이 올라가있는 응급함이 있음. 말할 때 아기 목소리. 문 앞을 서성이는 게 취미. 하지만 금세 또다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이곳저곳 누비고 있음.



살라무딘

DCC의 반전 인물. 공부만 하고 조용한 줄 알았지만 반삭과 함께 영혼도 자유로워짐. 단원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숙제 하느라 항상 지켜만 보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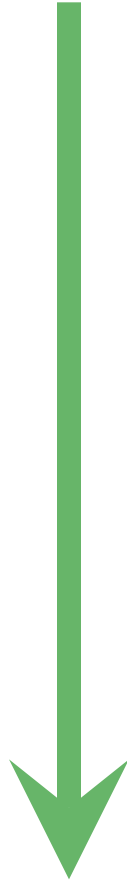
- 아이들 전반적으로 소를 무서워함. "소 보러 갈래?" 라는 말을 싫어함.
- 헤어질 때는 손 번번을 돌려주어야 함.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짹짹 소리를 내는 모습이 환상적임!)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우리는 DCC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페인트 칠을 계획했다. 첫째로 새똥얼룩으로 더러워진 창과 창틀 도색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입구 반대쪽에 위치한 벽면 벽화를 그렸다. 이번에 벽화를 그린 곳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주 투척하여 무척 더러워져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벽화를 통해 이곳이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페인트칠에 생소한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NEETA단원은 창문 칠하기의 고수가, PRIYA단원은 벽화 디자이너가, ROHAN단원은 색깔 섞기의 달인이 그리고 KARAN단원은 자기만의 예술 공간(일명 '까란공방')을 가진 예술가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생겨나기도 했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 DCC 환경개선 프로젝트 -

지난달 우리는 DCC 주변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명 DCC 환경개선 작업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달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주기적인 Cleaning과 Gardening을 계획했다. 하지만 뭄바이의 오래된 건물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도색 작업 등의 정비계획이 발표됐다. 완공된 지 오래된 DCC 부근의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계획을 미루고 페인트작업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청소를 시작할 예정이다.

9월 23일자 인도의 한 신문

9월 27일자 한국의 한 신문

SUNDAY TIMES OF INDIA, MUMBAI
SEPTEMBER 22, 2013

Collapses Continue In Township Of Illegal Structures

One killed in yet another Mumbra building crash

Nitin Yeshwantrao | THE

Theme: A man died and two people suffered minor injuries when an illegal five-storey building collapsed in Mumbra on Saturday.

Most of the 120-odd residents had run out to safety 30 minutes before the 7.50 am crash in the main market.

Heavy machinery could not be used for rescue work because of the narrow lanes leading to the 28-flat Building Number 5 that crashed inside Banoo Compound. The structure stood a stone's throw away from the site of a building that collapsed exactly three months ago.

While the June 21 collapse of the three-storey Balaran Smriti had claimed 10 lives, the working-class township was witness to the worst building crash in state history on April 4 when the illegal Adarsh building in Lucky Compound at Shilphata came down and claimed 74 lives.

The deceased in Saturday's crash was identified as Hanif Kazi. He and his wife, Samira (25), were trapped under the debris while sleeping.

Samira was pulled out with minor injuries and taken to the Kalsekar trust hospital in Kasse.

The builder, one Shakeel, was detained by the police, said sources. Shakeel has an office in the area. "We are yet to make any arrests as there are too many legal issues involved," ACP Amit Kale said. "It isn't clear who the actual builder of this building is as it seems to be a firm with many partners."

A team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Force and the fire brigade arrived for rescue operations soon after the building collapse.

It might have been a bigger

ALERT RESIDENT SAVES MANY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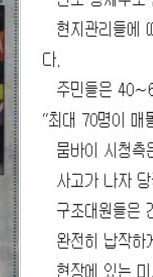


THE STRUCTURE THAT FELL
NAME | Building Number 5 in Banoo Compound (Mumbra main market), built in 2004
STOREYS | 5
FLATS | 28 (with 120-odd residents)
PREVIOUS CRASHES | JUNE 21 | Three-storey Balaran Smriti crashes, killing 10 and injuring 14. It also stood in the main market of Mumbra, very close to the site of Saturday's crash

tragedy but for a resident. Mohammed Aslam, who sensed danger well in time and alerted the neighbours. "It was my daughter Aasma who first alerted me about stuff falling out from crumbling walls around 7.15 am," Aslam said. "I saw a crack on the wall. The windows would not shut and the doors were jammed. I realised the building would collapse soon."

"I asked him to vacate immediately and inform all neighbours," Aslam said. "As everybody ran out, a person named Javed from the second floor re-entered the shaky building to lock the doors of his flat and was trapped under the debris. Khalil Shaikh, who lived on the third floor, said that the building, built about eight years ago, was not firm. "There is a nullah flowing nearby but no one stopped the

builder from constructing here," he said. "The building was in a bad shape and the residents had given sanction to repair and redevelop the building at a cost of Rs 132 per sq ft. I thank god we got 30 minutes to leave before it came down around 7.50 am."



FROM CREAK TO CRASH
7.15 AM | Mohammed Aslam's daughter tells him stuff is falling from "crumbling walls"
7.15-7.20 AM | Aslam sees crack on wall, is sure building is falling
7.20 AM | Aslam calls Muna on the third floor, tells him to alert others. People begin vacating the building
7.50 AM | Building comes crashing down

BROUGHT OUT ALIVE: An injured Samira Kazi is pulled out of the rubble by rescuers on Saturday; (left) the crash site in Banoo Compound in the Mumbra main market

국제 종합

인도 뭄바이서 5층 아파트 붕괴... "최대 70명 매몰"

+ - 窓

승인 2013.09.27

f t n 8

인도 경제수도 뭄바이에서 27일(현지시간) 5층짜리 아파트가 붕괴, 최대 70명이 매몰됐다. 현지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뭄바이 시내 마즈가온 지구 소재 시영 아파트가 무너져내렸다.

주민들은 40~60명이 건물 잔해에 갇혔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인도국가재난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최대 70명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뭄바이 시청측은 당초 20명 정도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했 바 있다. 사고가 나자 당국은 소방차 12대, 구급차 4대 등을 현장에 급파, 구조작업에 나섰다. 구조대원들은 건물 잔해에서 7명을 구해냈다.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진 이 아파트 주변에는 현재 사람들이 몰려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 있는 미시 솔라카니(62)는 "내 아들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경찰은 사고 아파트 주민들이 2007년부터 시청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변 주민들의 말에 따라 건물 노후와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주변 주민들은 이 아파트의 벽 곳곳에 균열이 생긴 상태였다고 전했다.

최근 뭄바이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수개월 새 아파트 5채가 무너진 바 있다. 지난 4월 건물붕괴 사고 때는 74명이 사망했다.

인도에선 건물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 등에 따라 건물 붕괴사고가 잦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실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Night Study Center

9월부터 월, 수, 금요일 저녁 우리가 향했던 곳인 Night Study Center. 이 곳은 한 분의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방과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곳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의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우리의 방문이 학습 방해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되기도 했다. 우리의 고민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활동을 격려해주었다.

활동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정리하며 Korea Culture Day를 진행했다. 한국 소개와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인 '윷놀이', 한국 음식 '달고나'를 준비하여 나눠먹었다. 또한 K-Pop Dance와 Bollywood Dance를 번갈아 추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들과의 만남을 정리했다.



(5) END POVERTY Campaign

✓ 주제 선정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교육기회의 평등), 아동폭력, 교통안전, 환경(쓰레기), 질병(대기오염&말라리아), 슬럼가 주거환경, 노동(최저임금), 장애, 종교, 성 평등, 여성(위생)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다. 이 중에서 현지인들에게 와 닿을 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Kamathipura 환경개선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해변가에서의 캠페인 활동을 기획했지만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해변 청소담당업체의 허가가 필요한데다 우리가 치워둔 쓰레기의 두척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 달부터 흥미를 가졌던 '세계 화장실의 날'을 구체화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가 처음에 논의하고자 했던 쓰레기 문제나 여성 문제의 경우 '위생'의 빈곤에서 출발한데다 기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화장실로 문제를 좀 더 좁혀서 빈곤퇴치캠페인을 준비하였다.

(5) END POVERTY Campaign

주제	내용
쓰레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또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곳에서 악취가 심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대소변을 보거나 놀이할 하고 있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당연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하는 현상을 보면서 위생적인 측면과 내 집 앞이라는 영역의 인식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통	대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우리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길을 건너면서 교통안전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여성	이 주제는 슬럼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생리기간에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여자 단원들의 의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실제로 화장실이 가깝지 않는데다, 우리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성들이 겪고 있을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성 평등에 대해 현지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생각했다.

(5) END POVERTY Campaign

✓ 과정

1. Volunteer Meeting

처음 우리는 화장실 관리(비위생적), 여성화장실의 부족, 요금 징수의 부당함에 대해 접근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팅을 통해 화장실 관리는 사용자측면에서도 다루줘야 할 문제이며, 요금 문제도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의 화장실도 상당 부분 있는 상태며 요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화장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자는 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 역시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충분히 보았던 상태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금문제는 빈민층의 경우 화장실 요금을 징수하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수도세, 관리비 등을 들어 화장실 요금이 부과되는 곳도 있음을 확인하고 현지의 조언을 참고하여 다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5) END POVERTY Campaign

2. Community Meeting

우리는 실질적인 인도 여성들에게 여성화장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ORD에서 40명의 여성들과 함께 미팅을 가졌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미리 준비한 빈곤의 개념, 화장실 이용, 깨끗한 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다큐멘터리를 보고 화장실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처음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가 쉽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5) END POVERTY Campaign

3. END POVERTY Poster

한국에서 정해준 빈곤퇴치캠페인 기간 동안 UN에서 지정한 MDGs를 토대로 각각에 대한 빈곤 상황을 설명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각 기관장에게 E-Mail을 보냈고, 여건이 된다면 출력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YMCA 소속 멤버들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4. Road Campaign

거리 캠페인을 나섰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 중 하나인 CST 역에서 진행했다. 피켓과 배너를 설치하여 지나가면서도 잠시나마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설치했고,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직접 부스로 안내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스에서 'PLEASE FLUSH'라고 적힌 농구골대에 공을 골인 시키면 위생에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는 종이비누를 나눠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여성화장실 부족에 관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3. 우리들의 이야기

KARAN (류병수 단원)

변수; 《수》 함수 관계로 대응하여 주어지진 범위의 안에서 변환하는 수.

10월의 마지막날, 우리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나흘치 짐을 꾸려서 어디론가 떠났다. 이날 오전에 열린 Bombay YMCA Staff Meeting에서 라온이씨가 Juhu Street Shelter의 아이들이 떠나는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출발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기부자들의) 후원을 받아 16명의 친구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으며, 대절할 버스에 여석이 있어 문화체험의 기회로 우리도 (차량을 얻어 타고) 함께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고도 없이 떠난 여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편도로) 10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숙소, 또 이곳에서 1~2시간 걸리는 목적지. 게다가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굽이굽이 이어진 길이라 몸도 불편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떠났던 곳이라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버스 안에서 율해말 이곳(Juhu)을 떠나야한다는 17살의 한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오는 것이 내 꿈이었다고, 그 꿈이 이뤄졌다고. 순간 그 때까지의 이번 여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한 사람에게겐 간절할 소원이 나에게겐 유연히 또 쉽게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지 않았나 하고 말이다.

2개월에 가까운 인도생활을 돌아보면 이와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변수가 있어서'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변명하며 '계획'이라는 나만의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달 Kamathipura Day Care Center에서 진행한 주민간담회(Korea Culture Day)는 수정을 거듭하며 원래 우리가 기획했던 부분과 상당부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다. 이달 같은 곳의 외벽 및 창문 페인트칠도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계획이 다소 틀어지면서 갈수록 처음에 으샤으샤하던 힘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목적보다는 어쨌든 처음의 계획에만 맞추려고 했다.

특히 이달 내내 있었던 빈곤퇴치캠페인은 더욱 힘에 부쳤다. 몇 일 밤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고, 기획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그렇게 돼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내 모습도 보였던 것 같다. 실제로 ORD Community Meeting에서는 (우리 모두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아 내내 신경이 쓰였다. CST Station Road Campaign 때는 열심히 만들었던 피켓이나 배너, 유인물 등이 많이 변경되어 있어서, 시민에게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는데, 정작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유인물을 나눠주고만 있어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당일 힘들 것 같다는 코디네이터의 의견 하나로 그간 준비했던 것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돼버려서 한 동안은 멍한 상태를 있기도 했었던 게 내 모습이었다. 후에 이곳에서는 화장실 문제에 관해서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의견 한마디 적어준 것으로 큰 성과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작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잘못이었음에도 변화된 내용이 치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이달 초 NSC에서 아이들 한 무리가 우리 4명에게 짓궂은 장난과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그런 말을 알아들은 나는 그때 생각했었다. 말은 꼭 소리가 아니더라도 말투나 몸짓, 분위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말이다. 나도 (목소리가 아닌) 말로, 이직도 버리지 못한 수많은 것들에 욕심을 내며 이곳의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괴롭혀 했음이 분명하다.

지난달 월별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로 매주 공책 앞에 적어둔 출국전캠프 내용을 살펴본다. 휴지통 비우기, 무리한 성과주의 지양, 의심하지 않고 현지 Staff를 신뢰할 것 등. 읽을수록 그렇게 하면서도 또다시 그 상황이 닥치면 쉽지가 않다. 인도로 떠나오면서 나의 오늘을 살아가 겠다던 나는 항상 어제의 내만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최선의 상황이 변수가 있는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게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는 변화하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었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시금 나의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던 것일 수도 있기에, 언젠간 나도 그랬었더라면 하고 다시 오기를 헛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기에 나의 오늘을 그리고 타인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마음을 고쳐 먹는다.

PRIYA (박소현) 단원

인도로 떠나기 전, 그러니까 약 두 달 전에 일기장 하나를 구입했다. 인도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함에서이다. 작심삼일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나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 9월은 그래도 꽤 성실히 일기쓰기에 임했던 것 같다. 10월도 9월만큼의 이야기가 있겠지 싶어 에세이를 쓰기 전에 생각도 정리할 겸 일기장을 펼쳤는데, 10월의 일기와 9월의 일기는 가히 대조적이었다. 일기장 글씨는 날림체에 글씨 크기는 등비수열처럼 나 날이 커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들었다.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던 10월이어서 그런지 몸이 쳐지니 생각하기도 귀찮아진 것이 변명이라면 변명일까. 문득 점점 산으로 가는 나의 일기장 속 글씨체를 보면서 왜 난 항상 이렇게 매사에 금방 미지근해져버릴까, 왜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금방 무뎌져 버릴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 한 켠을 계속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다.

비단 일기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10기 인도팀은 활동 스케줄 상 지난 두 기수와는 달리 IH(international house)라는 YMCA에서 운영하는 호스텔에서 한 달 더 머물게 되어 총 두 달을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10월 내내 든 생각은 다름아닌 ‘여기 한 달 더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였다. Reception desk에서 항상 우리에게 정답게 인사해 주고 우리의 숙소 키를 보관해 주던 직원분들과는 10월이 돼서야 서로 제대로 된 통성명을 했고, 항상 휴지와 청소 도구를 빌려주셨던 청소하시는 아저씨들과도 10월이 돼서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숙소 밖을 나가 활동하며 만나는 Day care center 아이들, Night study center 아이들, Play-school 아이들 못지 않게 여기 호스텔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인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인데(생각해보면 우리가 인도에 와서 코디네이터 다음으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인도인들도 사실 이분들이다.), 그에 비해 나는 그들의 친절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주변부터 소홀해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한 달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들을 뒤로 한 채, 그래도 한가지 IH를 지내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잘 한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5층 숙소 (사실 여기는 한국 1층이 2층이기 때문에 6층이다.) 까지 계단을 이용한 일인 것 같다. 이는 ‘탄소배출량절감을 위해’ 같은 원대한 이유도, 건강관리나 힙업운동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아닌, 그냥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만나는 직원들(때로는 다른 투숙객들 까지도)과 눈 마주치며 짧은 문안 인사라도 나눌 수 있었다는 평범한 이유에서이다.

만약 ‘우리 숙소는 5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6층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돼’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잠깐 숨고를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과 네모난 상자 안에서의 숨막힐듯한 침묵뿐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와서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몸이 너무 힘들어 조원오빠들 몰래 엘리베이터를 몇 번 이용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결국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원들에게 걸릴까 조마조마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보단, 조금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눈 마주치며 ‘good morning’이라며 그 곳 사람들에게 짧은 인사라도 건넨 편이 훨씬 좋았던 것 같다.

항상 마음 굳게 다짐해봐도 그만큼 또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에 관한 다짐들인 것 같다. 이제는 정들었던 IH와 그곳 주변 아이들을 떠나 Boy’s Home이라는 새로운 64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벌써부터 이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과연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인 만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지도 않고 완급조절을 잘 하면서 슬기롭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 시점에서의 나의 가장 큰 바람인 것 같다.

Paper bags and plastic hearts
All are belongings in shopping carts
It's goodbye
But we got one more night
Let's get drunk and ride around
And make peace with an empty
town
We can make it right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 escap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Watch it burn
Let it die
Cause we are now finally free
tonight

All of the wasted time
The hours that we're left behind
The answers that we'll never find
They don't mean a thing tonight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 escap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 escap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 escap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Watch it burn
Let it die
Cause we are now finally free
tonight

<Boys Like Girls – The Great Escape>

ROHAN (서용덕 단위)

두 달... 8주... 81일... 이제 International House에서 적응이 좀 됐는데 숙소를 옮겼다.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두 번의 Korean Cultural Day를 했고, 두 주간의 페인트 칠에 종지부를 찍었고, 두 달간 배운 힌디어 수업이 끝났다는 거? 그 중 하이라이트는 두 번의 Singapore Chicken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 날들만큼은 모든 아피들이 몇 번씩이나 리필을 해왔다는 후문이 전해지는 그런 전설의 치킨이다. (한 명의 아피는 한 번 밖에 그 맛을 보지 못했다.)

페인트의 성지

10월은 9월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다. 페인트 작업이 한 몫을 한 것 같다. 허리도 아프고 페인트 냄새와 쓰레기 악취 때문에 눈과 머리로 시큰거렸지만 완성된 벽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한 편으로는 언젠가 하고자 했던 쓰레기 청소를 해주지 못하고 거처를 옮기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

코스수업

10월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한 번 길러 보았다. 한국에서는 해 볼 생각조차 못 해보았으나 이 곳의 수업을 기르는 사람들도 많아기에 한 번 도전 해 보았다. 하지만 내가 수업이 멋지게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지만 길러보니 완전 가시베 스타일의 수업이었다. 그래서 처음 기르기 시작 할 때부터 한 달만 딱 기르자고 다짐한 대로 11월 1일이 되면 싹 밀어버릴 예정이다. 수업을 기르면서 면도 시간이 단축되어서 편해지지만 역시 내 몸엔 맞지 않은 거 신경만 쓰일 뿐이다.

Boy's Home

새 거처에 동지를 틀었다. 대학가의 하숙집 느낌이 났다.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실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 부엌이 있으며 각 침실과 하나의 화장실이 있다.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불편함은 모르겠으나 우리 팀원끼리 함께 할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기분이 좋다. 지나간 두 달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세 달이 더 기대되고 설레고 있다.

The Great Escape

위 노래는 인도에 오기 전 밴드부에서 했던 공연의 마지막 곡이었다. 제목과 가사에서 그러듯 나는 위대한(?) 탈출을 했다. 한국에서의 삶을 벗어 던졌고, 2개월간의 정들었던 공간에서 나왔다. 탈피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그런 것 같다. 이제 앞으로 64명의 소년들과 관계를 맺는 도전을 앞 두고 있다. 남은 3개월 인도에서 그들과 아띠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대되지 않는가?

소주가 짝꿍 땡기는 시점에 ...



NEETA (조현정 단원)

뭄바이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다. 이제는 나답게 뭄바이에서 적응하며 잘 살고 있다. 2달 동안의 IH 생활을 마무리 하고 우리는 Boy's Home으로 이사를 왔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즐거움도 있지만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아쉬움이 함께 한다.

10월에는 Day care center를 거의 매일 가서 그러지 그곳 아이들과 정이 정말 많이 들었다. 페인트 칠 때문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더 많이 이름 불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이름을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이들과 관계 형성의 시작이고 아이들에게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DCC아이들은 우리가 없어도 아마 평소 때처럼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재미있게 지낼 것이다. 아이들의 일상에 갑자기 삽입된 우리들과의 만남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낯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고 함께 즐거워해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나는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 나의 일기장에도 아이들 이야기 뿐이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은 DCC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된다.



DCC아이들을 위해 달고나를 만들면서 한국에 있을 때 내가 특별히 소중히 여겼던 아이들이 생각났다. 내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했던 장애아동들인데 이 아이들의 생일이거나 특별한 날에 항상 내가 먹을 것을 사가거나 만들어 가고 연말이 되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첩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나 사진첩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다하는 방법 등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배운다. 아이들 덕분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이 아이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인 것 같다. 나는 항상 아이들과 나와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도 나도 함께 성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10월은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정든 아이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언제나 헤어짐과 만남은 함께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다. 비록 스쳐가는 인연일 지라도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사랑스러운
10명의 보물들!

드디어! 거의 한 달 동안 준비했던 End Poverty 캠페인이 끝이 났다. 한국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핸드아웃을 나눠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민들의 거절과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용기를 내서 시민들과 직접 부딪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야심 차게 준비한 퍼포먼스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사실 로드캠페인 전날 새벽까지 시민참여를 위한 신문을 만드느라 우리 팀 모두가 같이 고생했었는데 아쉬웁게도 시민참여 부분은 생략되었다.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코디네이터는 시민 참여 퍼포먼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생략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인도 사람들은 대소변도 숫자 1, 2로 표현할 만큼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러내 놓고 잘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들이 부스에서 공중화장실과 위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쓰고 가는 것만 해도 좋은 성과라고 할 만큼 인도 사회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 시민참여 퍼포먼스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대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구역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밤새도록 준비 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한... 시민참여용 신문! (영어버전&힌디어버전)



준비과정에서 시민참여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준비 과정부터 진행까지) 내가 그 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여러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 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황과 대상의 흐름에 따라 유연해 질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 한 일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할 것이다. 그때 마다 실망하고 아쉬워 하느니 그 에너지로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해야겠다. 밀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내 모습이 가끔은 대책 없고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건 무한한 긍정적인 마인드 인 것 같다. 인도에서의 시간은 한국에서보다 빨리 가는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나 다운 모습으로 남은 3개월 동안 Burn Out 되지 않고 인도를 더 많이 느끼고 담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월·의 ·키·워드 :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 버거

사진: 롯데리아



유러피안 = PRIYA

프리코 = NEETA

치즈 = ROHAN

버거&피클 = KARAN

라운아띠 10기 인도팀의 때아닌 가수 '핑클(Fin.K.L)'의 논쟁(?)의 결과물.

20세기 히트곡 <영원한 사랑>을 흥얼거리던 **프리코**,
(이효리&이상순 결혼 기사를 접하고는 가수 이상순의 골수팬임을 자청했었던 1인)

그 옆에서 노래 해설을 달고 있는 **버거**,
(핑클은 영원하다 외치고 다니는, 한때 팬클럽 핑키로 활동하기도 한 1인)

버거의 '유럽풍 POP'이라는 단어에 "무슨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 버거"를 떠올린 **유러피안**,
(뮤지션이자 예능인으로 알려진 윤종신을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종종 밝히곤 하는 1인)

옆에서 듣고만 있던 1인은 찌리 **치즈**가 되었다.
(매일 커피 한 잔씩 들이켜대는 의외의 취향을 지닌 의문의 1인)

그리고... 유러피안과 프리코는 종종 윤종신이나 이상순이나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

1. 인도에서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소감은?

두 달이 지났고, 세 달이 남았다. 지나간 날들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많기에 기대가 되고 좋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단연 페인트 작업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붓도 안 잡아 본 내가 벽화 작업을 하고 있다니... 처음엔 페인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몰랐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 수록 방법을 터득하고 각자 파트를 나눠가며 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 나는 지나간 일에 대해 크게 연연하거나 담아두지를 않는 성격이라 소소한 일들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다가올 세 달의 시간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 같다는 것이다.

2-1. 지난 달 NEETA는 ROHAN을 ‘TOM&JERRY’의 톰(TOM)으로 비유했다.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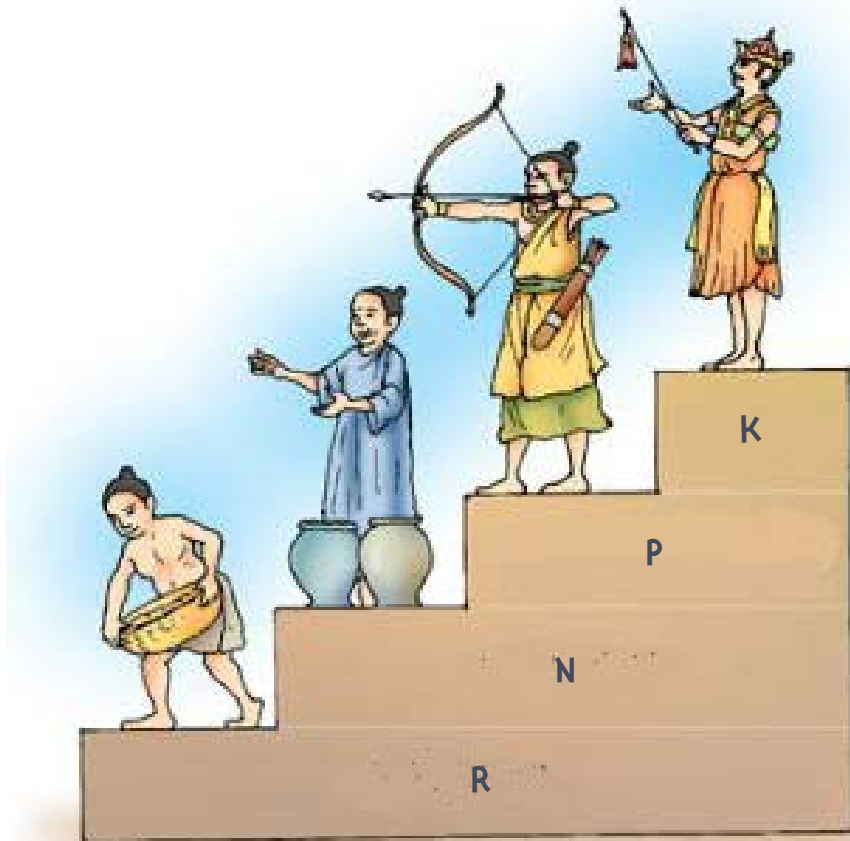
처음에 톰과 제리라고 해서 뭘 소린지 몰랐다. 팀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 별명에 대한 느낌은 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 그런 별명이 붙은 것에 있어서 KARAN과의 관계를 보고 붙여진 것이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주위에서 보는 느낌이 그런가 보구나 한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2-2. 팀원들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전체 질문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같다. 얘기 하자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큰 갈등도 없었다. 평화로우면 좋은 거 아닌가? 하하하. 물론 다들 서로 뭔가 속에 담아놓고 이야기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뭐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인도에 딱 우리끼리 넷이서만 있으니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팀 내의 카스트제도가 있다고 한다. 최상위인 브라만 그리고 그 밑으로 쪽 있다. 처음에 장난 삼에 이야기 했던 카스트 제도가 점점 고착화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나 혼자 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뭐 어쨌든 이렇게 장난도 쳐 가면서 팀원들끼리 재미있는 관계들이 형성 되어 있다.



3-1. 아무래도 팀의 육체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틴 틴이 본인의 입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생각인가?

국내 훈련에서부터 생각했었다. ‘내가 인도에 가면 우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실제 인도에 와서 한 달, 두 달 생활을 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씩 알겠더라. KARAN은 꼼꼼한 성격으로 스케줄을 잘 기억하고 신문사 출신답게 공적인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공문서도 담당하여 쓰고 있다. 또한 팀에서 유일하게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다. PRIYA는 아트를 배우는 학생답게 예술적 감각이 좋은 것 같다. 특히나 벽화 작업에서 굉장한 빛을 발했다. 또한 우리 팀의 사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월별 보고서에 들어갈 사진들은 다 그녀의 두 번째 손가락 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EETA는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한다. 또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 우리는 주로 인도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옆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팀원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난 주로 아이들과 뛰어 놀고 운동하는 거나 야생 활동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이 잘 맞고 잘하는구나 싶더라.



3-2. ROHAN에게 페인트란 □다.

나에게 페인트란 ‘사투’다.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많은 사투를 했다고 생각한다. 땀별과의 사투, 냄새와의 사투(페인트 냄새던 쓰레기 냄새던), 소와의 사투(벽화작업 할 때 소들이 뒤에서 얼쩡대서 조금은 무서웠다.), 먼지와와의 사투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창살과의 사투! 창살 사이사이 칠하는 작업을 할 때는 진짜 손바닥과 엉덩이가 간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왜 그런 느낌 있지 않은가? 작은 부분에 막 집중해서 뭘 할 때 느껴지는 짜증과는 또 다른 그 느낌 말이다.



3-3. ROHAN에게 새똥이란?

나에게 새똥이란 ‘아차’ 다. 아차 하는 순간에 새똥을 맞게 되었다. 항상 주의 하며 최대한 안 맞으려 노력했지만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의 질퍽한 느낌... 새똥임을 직감하자마자 다른 팀원들이 웃기 시작했다. 덕분에 모자를 빨 수 있긴 했다. 또한 아차(Acha)는 힌디어로 Good이라는 뜻도 있다. 새똥 덕에 NEETA에 이어 두 번째로 질문을 받는 아차(Acha)한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는가? 하하하



4-1. 평소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인도에서 활동은 어떠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나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건과 기회이다. 나에게 라온아띠라는 기회외가 주어졌기에 평소 가 보고 싶었던 인도를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나의 삶에서 하고 싶었던 것 중 큰 걸 하나 이루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굳이 인도에서의 활동에서 하고 싶은 활동까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오고 나서 캠핑 같은 것은 없나 싶었는데 11월에만 3개의 캠핑이 계획되어 있다.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난 그 기회를 가질 여건이 있으니 말이다.

4-2. 틈틈이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는다.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평소 경제와 관련되거나 여행에 관련된 책을 접하는 편이다. 자기 계발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계발서는 그 책의 저자의 성향과 상황판단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향제시 또는 독자만의 것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의견이나 방법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라온아띠 활동기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을 거라 판단되어 각자 다른 종류의 책을 네 권 들고 왔다. 그 중에 두 권 정도가 자기 계발서이다. 한 달에 한 권쯤 읽을 것이라 판단해 네 권을 들고 왔는데 어이없게도 다 읽어버렸다. 한 번씩 다시 다 읽어 볼 예정이고, 같은 내용의 책 일지라도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5. 5개월의 활동이 1/3을 지나 1/2이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

당장에 있을 두 번의 캠프. 그 곳에서 우리가 할 역할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이전 아띠들 그리고 다음 아띠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10기만의 스타일대로 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nternational House에 있을 때 보다는 활동 반경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 곳에서의 아이들과의 활동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6.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남은 기간을 우리는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게 된다. 생활면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것이 없게 조심하는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 인 것 같다. 또한 비염 때문에 고생 많았던 PRIYA(나 역시)와 금방 나왔지만 감기 기운이 있었던 NEETA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KARAN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건강하게 별 탈없이 지냈으면 한다.



#3-1. 아슬아슬 눈치싸움,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서

석양은 가게마다 진열된 도금 접시나 항아리에 반사되고, 커다란 인도 영화 간판 앞에 관객들과 릭샤들이 늘어서고, 전깃줄에는 무수한 까마귀들이 음표처럼 앉아있고, 양들과 소들은 목 방울을 울리며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있다. ... (중략) ... 그녀들은 급정거한 택시에서 내린 운전사와 이소베의 모습을 불안스러운 눈길로 응시하고, 아이들은 손을 내밀어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 (중략) ... 택시가 사람과 소와 릭샤의 소용돌이를 빠져나가자, 느닷없이 전방에서 뭔가 파열되듯 요란한 악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외침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차의 경적이 몇 번씩이나 거둬 울렸다.

- <깊은 강> (엔도 슈사쿠, 유숙자, 민음사, 2007)

1990년대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활동장소로 향할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 노란색 택시(CAB)인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수레 등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 간혹 소 (혹은 염소) 함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이들을 따라가기에는 속도가 느리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피해서 제 갈 길을 간다. 혼돈 속의 질서가 이곳 도로에 알맞은 말일 것이다. (물론 이곳 역시 러시아워도 존재하고, 좁은 골목에서는 차량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난다.)

인도 교통 문화(?)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끊임없이 울려되는 '뽕뽕' 경적소리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심지어 한 단원은 귀마개를 필수 준비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한동안은 이 소리가 귀게 거슬리더니 요즘은 끊임없이 들리는 이 소리가 '조심하세요!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로 들리기도 한다. 워낙 혼재한 상태의 길이다보니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경적소리는 이곳에선 무척 당연하다. 트럭 뒤쪽에 'HORN PLEASE'라고 적혀져 있다. 백미러가 없어 뒤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앞의 대형차량이 비켜주는 식이다. 이를 알고나면 경적소리가 단순한 소음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3-1. 아슬아슬 눈치싸움,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서

여기까지는 한국의 모든 골목길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한국과 비슷하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대로변이다. 일단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것을 중심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차선을 본 것은 Bombay YMCA Branch 탐방할 때 일부 도로에서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 역시 드물다. 발견하더라도 신호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동네 근처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나마 지켜지는 곳이다. 횡단보도가 없으니 일종의 무단횡단을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차가 오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기 보다 무섭고 겁이 났다). 한동안은 인도 현지인이 건너는 모습에 뒤따라 건너기도 했는데, 요즘은 요령이 생겨서 겁없이(?) 건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너고 나서는 안도감과 함께 현지인이 다 되었음을 느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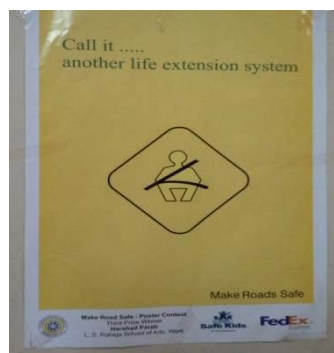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주제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빈곤퇴치캠페인의 하나로 준비하고자 추가 자료를 찾아보던 것 중에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인도 정부는 보고서(ADSI 2012 : Accidental Deaths & Suicides in India 2012,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Ministry of Home Affairs)를 통해 매일 교통사고로 461명이 죽고 1,301명이 부상을 입으며, 이중 도로 381명이 죽고 1,287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사망자의 42.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모든 사고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통사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과 같이 모든 사람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 이곳에서는 차량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다. 대신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이다. 종종 우리는 오토바이에 3~5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토바이가 한 가족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ORD 건물에 부착된 포스터

뭄바이 내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3-2. 서울은 지하철, 뭄바이는 로컬트레인

우리는 두 달 가까이 이곳에 살면서 버스, 택시, 오토릭샤, 기차 등(Rohan 단원의 경우 오토바이까지 섭렵했다) 육상교통은 모두 탑승해봤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중수단으로서의 교통 역시 낯선 것도 잠시, 이제는 익숙해졌다.

첫째로 버스, 이곳의 버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매표원이 있어 탑승 후 매표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한 앞쪽에는 인도식 숫자(१२३४५६७८९०, 1234567890)가 옆쪽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창문을 개방한 채로 운행을 하지만 (그래서 비가 오는 때는 승객들이 창문을 닫으려고 애쓰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Navi Mumbai쪽에서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이를테면 냉방기가 장착된, 진짜 한국의 시내버스와 흡사한 형태의, LCD로 번호와 행선지가 표기되는) 버스를 보기도 했다. 10월 말 탑승한 대절버스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승무원이 2명이라는 사실. 교대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 U-turn 할 때는 운전하지 않는 다른 한 명이 내려서 다른 차들을 통제하는 등 원활하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을 제외한 기타 승객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도 한다.

둘째로 택시, 때때로 자동차 매연쯤은 감수해야 하지만, 뭄바이의 공기를 한껏 느끼기에는 최적이다. 많은 수가 위쪽은 노란색, 아래쪽은 검은색이 나란하게 칠해진 차량이지만, 때때로 파란색 차량이 있기도 한데 이는 냉방기가 있는 차량으로 조금 더 요금이 비싸며 잘 볼 수도 없다. (우리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만 봤다.) 택시의 경우는 친숙한 Hyundai 상표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차량의 경우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데 인도의 도로 사정이 울퉁불퉁하여 이러한 충격을 견디게끔 하느라고 꽤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만큼 인도의 도로는 평편한 길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

셋째로 오토릭샤, 인근에서는 오토릭샤를 볼 기회가 없다. 도심에서는 오토릭샤를 줄이는 추세다. 대신 Navi Mumbai 지역에서 우리는 탈 기회를 얻었다. 기차역에서 내린 뒤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오토릭샤를 보았다. 잠깐 탑승한 소감은 그리 나쁠 것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단지 문이 없으므로 바깥쪽에 앉을 경우 아슬아슬 청룡열차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사를 온 Andheri 지역에는 릭샤가 많아 앞으로 이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시내버스에서



오토릭샤에서



#3-2. 서울은 지하철, 뭄바이는 로컬트레인

넷째로 기차, 우리가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면 단연 기차다. 이전 숙소(IH) 근처에도 2개의 역이, 이사온 숙소(Andheri)에도 1개의 역이 있다. 기차는 시내 운행하는 것과 시외를 운행하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 시내를 운행하는 Local Train은 일종의 지하철 개념이다. Local Train도 역마다 운행하는 Line이 다른데, 한국으로 따지면 X호선이다. 기차역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수많은 인파다. 한국의 출/퇴근 수준을 조금 뛰어 넘는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설/추석연휴 기차역에서 보는 귀경객 수와 비슷할 것 같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보면 서서 가는 사람이 많아 기차가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다. 열차 자체로 보면 노약자석도 있지만 여성전용칸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점, Local Train이라 하더라도 좀 더 값비싼 일등석이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특히 인도가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전용칸이 있다는 점은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개폐되는 문이 따로 있지 않은데, 워낙 붐벼서 출입구 문에 서서 탑승할 경우 때때로 추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함께 다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경우도 있단다.



뭄바이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CST역(Chhatrapati Shivaji Terminus). 우리가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한 곳이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직까지 라온아띠만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없다. 대부분 이곳의 Staff나 YMCA 소속 자원봉사자와 함께였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한편, 대중교통이 다양한 인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와 마주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항상 설렌다. 언제쯤이면 우리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MONTHLY PHOTO















